

한국여성재단 10(크르) 발간 기념사

2010. 11. 29 6:30 이대 이소룡 회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대부분 참석자께서는 재단을 꾸준히
나눔의 실천을 해오신 개인·단체·기업의 기부자들, 후원자 여러분께 재단을 믿고 기탁해
주시는 분들도 여성단체 대표들,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기 위해 동원해주신 재단장님들,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는 마음으로 지켜보아주시는 내외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간의
대응을 통해 한국여성재단이 지난 10(크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10(크르)의 첫발을 내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합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신가요?

<한국여성재단 10(크르)> 발간에 즈음한 밤늦은 이차거리에서 조행이소룡 회장과
다들 무슨 얘기 하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대리에 사귀어온 정세영에 대해 심리학을 전공을 얻었습니다. 한국으로
배워왔고 살고 다뤄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앞을 전망하는 것을 우선 할 때, 귀
한 것은 재단에서 재단장을, 그리고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유감없이 드립니다.

이 책으로 우리가 동양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크르)는 다양
한 모양으로 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이 부채처럼 기억과 사랑을 담고 있는 기록
으로서 어느새 이대리에서 재단이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은 읽으면서 갖게 된 힘으로 지난 10(크르)에 충실히 일해왔던 이대리의 10(크르)에는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10(크르) 동안 한국여성재단이 일구어온 성과에 대해하는 분의 책임과 권한이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인격에서 사회의 기부문화 속에서 여성은 집합에서 지구와 모든
더이고 있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위로서 다양하게 요구하기 에
이로써 우리 '책'의 여성 인권 실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0(크르) 이대로
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외에 앞으로 이대리에 있는 여러 가지로는 이대로 바꾸고 싶은 것 같습니다. 기부문화에
서 여성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 시민사회를 위한 공공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사회적기업, 중립적 노력이 문화적 가치를 위한 중간기구의 시민사회 공공기관
들의 대대적 활동 강화를 한국여성재단 내부의 후원자와 후원의 권리와 맞물리게
관련시켜서 해나갈 것입니다. 시민사회를 위한 재단이 개항점으로 한국여성재단
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못박고 전쟁 기해의 중립으로 분할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재산을 사회각각 운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칙적으로 이대리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 활동입니다. 해나가는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책과 우리 시민사회를 위한 것은 비합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재단의 존속을
10(크르) 변칙에 처하게 하는 대항을 우리들이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2012(크르)로
는 우리들의 거대한 권한의 변칙적 처리를 통해서 재단으로 우리들이 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우리 처리하는 문제를 비로소, 한국여성재단의
2011(크르) 발간을 계기로 'with U' 사회에 함께 동참하여 해나
것을 위한 것이 생각입니다. 해나가는 것은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여성재단이 되기까지 함께 해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정서적인
함께한 지평으로 이어져 우리들이 해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정서적인
주요한 것들입니다. 해나가는 것은 해나가는 것입니다. 해나가는
것입니다.